

부모효능감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이회성(Lee Hwe Seong)¹⁾

유순화(Yoo Soon Hwa)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size research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it, as well as to produce results using meta-analysis. The following questions guide this study : Which variables are frequently conducted in research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What is the effect size of each variable? The 65 studies whose results are analyzed in this paper were collected via a search for investigations focusing on 'parenting efficacy'. The studies were used for meta-analysis in which eleven variable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a large effect size is produced by the *parenting stress* in a negative direction. A higher than medium effect size occurs on the basis of *parenting beliefs* in a negative direction. A higher than medium effect size is also caused by the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social support*. A medium effect size is produced on the basi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a small effect size is the result of the *mother's academic background*,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s income*.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gender*.

Key Words : 부모효능감 및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관련변인(the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메타분석(meta-analysis), 효과크기(effect size)

* 이 논문은 2012년도 10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구두 발표 논문임.

¹⁾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²⁾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o Soon Hwa, Department of Educ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609-735, Korea
E-mail : shyoo@pusan.ac.kr

I. 서 론

인간이 성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환경은 부모이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부모의 가치, 태도 및 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hoe, 2002).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의 중요한 주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과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부모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유도하는 변인으로서 부모의 신념, 가치, 효능감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Moon, 2005). 이는 인지체계가 행동을 중재한다는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Bandura(1982)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인 부모효능감 또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것이다(Lee, 2010).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82). 이를 부모에게 적용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정의한 것이 부모효능감 또는 양육효능감이다. 이들은 같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지만 학자에 따라 부모효능감(Lee, 2010; Oh, 2005; Park, 2003)과 양육효능감(Nam, 2012; Son, 2011; Yoo, 2006)으로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역할 중의 하나가 양육이므로, 더 포괄적인 의미로 판단되는 부모효능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Bandura(1982)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보다 부모효능감과 같은 특정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부모 역할에 대해 갖는 기대인 부모효능감은 양육행동을 잘 예측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효능감과 자녀의 발달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Dorsey, Klein, Forehand와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의 연구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긍정적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이끈다고 하였다. 이들은 부모효능감이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Coleman과 Karraker(1998)는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는 보고를 통해 부모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Jackson, Choi와 Bentler(2009)가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는 매개변인으로서 부모효능감을 언급한 바 있으며, Secer, Gülay-Ogelman와 Önder(2013)는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수준이 자녀의 왕따문제(victimisation)를 가장 잘 예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연구들도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양육방법에 확신을 가질 때 자녀들의 감성지능이 발달하고 정서가 안정적으로 발달하며(Lee & Seo, 2007),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Kim & Doh, 2004; G. Kim, 2011). 이처럼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변인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특성과 부모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기질과 부모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Jung, 2009; Moon, 2005; Nam, 2012)들은 자녀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응도가 높거나, 수면이나 식사, 대변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이며,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질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적응성, 규칙성, 사회성, 정서성, 활동성 등의 자녀의 타고난 기질에 대해 부모가 만족할수록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그 중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Choi, 2010; J. Lee, 2009; Yoo, 2006)들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Crockenberg(1987)가 양육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능감을 강화시켜 양육행동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부모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부모 자신의 요인이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하는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An & Kim, 2005; J. Lee, 2009; Oh, 2005)들은 이들의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부모일수록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은 부모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양육지식을 들고 있다(Ha & Seo, 2010; K. Lee, 2009; Oh, 2005). 부모역할에 대해 갖는 지식은 그 지식을 근거로 하여 부모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높임으로, 양육지식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모가 갖는 양육지식이 부모의 학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부모의 학력과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력과 부모효능감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효능감과 부모의 학력은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Ahn, 2000; Choi, 2004; Jung, 2009).

부모의 학력처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변인들은 또 있다. 즉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효능감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Choi, 2004; Hong, 2010; Nam, 2012)도 있지만,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Byeon, 2011; G. Kim, 2011; K. Lee, 2009)도 있다. 또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모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유의한 결과(G. Kim, 2011; Nam, 2012; Son, 2011)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Ahn, 2000; Lee, 2010; Yoo, 2006)의 연구가 있으며, 가정의 월소득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yeon, 2011; G. Kim, 2011; Nam, 2012)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Ahn, 2000; Choi, 2004; K. Lee, 2009)도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수가 축적되어 있으나 실시된 연구마다 강조하는 변인이 달라서 각각의 변인들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나 영향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실시된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경우, 각각의 변인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처럼 단편적인 연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결론이 필요하다. 부모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무엇이며,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바로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다.

메타분석은 많은 수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수량적인 접근 방법이다(Oh, 2002). 메타분석에 대해 Light와 Pillemer(1982)는 기존의 연구방법보다 그 활용가치가 높다고 강조하였으며, Glass, MaGaw와 Smith(1983)는 다른 통계방법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메타분석은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가 제시한 통계적 분석 결과들을 모아서 ‘분석에 대한 분석’을 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할 때 적절한 연구방법이다(Oh,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부모효능감에 관련된 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접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효능감은 주로 어떤 변인들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으며, 각각의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부모효능감 관련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먼저 연구목적에 적합한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2012년 5월에서 6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 대한민국국회전자도서관, 국립중앙전자도서관에서 ‘부모효능감’, ‘양육효능

감’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에서 총 1476편의 연구를 수집하였다.

1차적인 선정 작업은 논문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RefWorks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부모효능감’과 ‘양육효능감’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동시에 검색된 논문이 많아 중복된 연구물을 제외하였으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중복될 때에는 학술지논문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중복된 연구물을 제외한 결과 총 758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특수아동의 부모이거나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탈북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배제하여 연구 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모효능감의 사전사후 효과크기를 측정한 연구물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1차 선정 작업을 거친 결과, 124편의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2차 선정 작업은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 중에서 메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변인을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1차로 선정된 연구물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Microsoft EXCEL 2007에 논문의 제목, 연구대상, 부모효능감 측정 도구, 관련변인, 관련변인을 특정한 도구 등을 입력하였다. 입력 결과, 해당 변인에 대한 연구물 수가 다섯 편 이하인 것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질을 평정하기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연구물을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종 65편의 연구물이 선정되었으며, 11개의 관련변인과 364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부모효능감 관련변인들은 자녀와 관련된 변

<Table 1> Concept of the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Variables	Concept
To the children	
Gender	The scale difference in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Tempera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children's temperament that the parents are satisfied
To the mother	
Ag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age
Academic backg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academic background
Status of employment	The scale difference in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mother's status of employment
Parenting st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stress that the mother experiences in the nurturing process
Parenting 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belief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parenting beliefs (Personality↔Intellectual achievement, Maturation↔Environmentalism)
To family surroundings	
Father's involv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how much the father involves in child care
Family's incom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family's income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nurturing children

인, 부모 자신과 관련된 변인, 주변 환경과 관련된 변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을 측정하여 관련변인에 대해 탐색한 논문은 수가 적어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녀 관련변인, 어머니 관련변인, 주변 환경 관련변인으로 명명하여, 해당변인과 개념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자녀 관련변인에는 자녀의 성별과 기질, 어머니 관련변인에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여부,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신

념, 그리고 주변 환경 관련변인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의 월소득,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2. 데이터 코딩 및 입력

먼저,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연구된 각 논문의 기본 정보(저자, 제목, 출처, 출판년도), 표집 대상(연구대상, 사례수), 연구설계(하위변인, 측정도구), 해당변인의 효과(각 집단의 평균, 표준

<Table 2> Classification of parenting efficacy scales' sub-areas

Scale	Sub-area	Efficacy	Communication	Health	Control	Education	Anxiety
Parent Sense of Competence (PSOC)	Efficacy as parents						Frustration and Anxiety as parents
Toddler Care Questionnaire (TCQ)			Communication skill	Sound parenting ability	Education	Development support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PPC)	Parenting Confidence Scale						Under Control Scale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General parenting self-efficacy		Communication	Health	Control	Education	

편자, r^2 , F^2 , 상관계수)를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각 효과크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부모효능감 척도를 확인하여 하위 영역을 분류하였다. 2차 선정 작업을 통해 부모효능감을 측정할 도구가 신뢰도나 타당도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어, 각 연구물들이 사용한 척도는 4가지로 정리되었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 Sense of Competence (PSOC)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불안을 측정하며,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PPC)는 부모로서의 자신감과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어, 각 영역을 'Efficacy'와 'Anxiety'로 분류하였다. Gross와 Rocissano(1988)의 Toddler Care Questionnaire (TCQ)는 Choe와 Chung(2001)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유사하였다. TCQ에서 '나는 아이가 짜증을 심하게 낼 때 대처방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의 내용인 교육영역은, 양육효능감 척도의 '나는 아이가 말썹을 부리지 않도록 훈육할 수 있다.'와 유사하여 'Control'로 분류하였다. TCQ의 발달지원 영역은 '나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에 어떤 장난감이 적절한지 알고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양육효능감 척도의 '나는 아

이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등의 내용과 유사하여 'Education'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CQ는 12~36개월 사이의 자녀, PPC는 학령기 아동, 양육효능감 척도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척도로서 모두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4개의 척도를 분류하였다.

3. 메타통계분석

1) 효과크기 계산

변인의 종류에 따라 표준화된 평균차 효과크기(Th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Effect Size; ES_{sm})와 상관계수의 효과크기(The Product-Moment Correlation Effect Size; ES_r)로 변환하였다. ES_{sm} 과 ES_r 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Cohen, 1988).

$$ES_{sm} = \frac{\bar{X}_c - \bar{X}_e}{S_{pooled}} \quad (\text{공식 1})$$

(\bar{X}_e : 비교집단의 평균, \bar{X}_c : 기준집단의 평균, S_{pooled} : 통합 표준편차)

$$ES_r = r \quad (\text{공식 2})$$

(r : 상관계수)

산출된 효과크기로 평균 효과크기(\overline{ES})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표준오차의 제곱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방법(Hedges & Olkin, 1985)을 사용하였다.

$$\overline{ES} = \frac{\sum_{i=1}^k (w_i \times ES_i)}{\sum_{i=1}^k w_i} \quad (\text{공식 3})$$

(\overline{ES} : 역변량가중치 적용 평균 효과크기,
 w_i : i 번째 효과크기의 역변량가중치,
 ES_i : i 번째 효과크기)

2) 효과크기 해석

효과크기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Table 3과 같이 해석한다.

<Table 3> Effect size criterion

	Small effect size	Medium effect size	Large effect size
$ ES_{sm} $	< .20	= .50	> .80
$ ES_r $	< .10	= .25	> .40

3) 동질성 검정

연구의 결과들을 효과크기로 변환한 후, 이들과의 분포가 동질성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검정 통계량 Q 값에 대한 해석은 Q 값이 χ^2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χ^2 분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유의수준 $\alpha(0.05)$ 에서의 χ^2 의 한계값을 확인하여, Q 값이 한계값보다 적으면 동질성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한 것이므로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자료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Hedges & Olkin, 1985).

4) 랜덤효과모형

동질성 검정을 통해 연구에 포함된 각 연구가 동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연구간 변동량 τ^2 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연구들의 이질성을 감안함으로써 산출된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된다(Oh, 2002).

5) 통계처리

각각의 연구물에서 찾은 효과크기의 계산과 평균차 효과크기(ES_{sm}), 상관계수의 효과크기의 산출(ES_r), 평균 효과크기(\overline{ES}), 동질성 검정, 신뢰구간 등은 Microsoft EXCEL 200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되었던 변인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개 이상의 효과 크기가 축적되어 있는 11개의 변인을 추출하여 3개의 변인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변인군별로 효과크기를 살펴본 후에, 부모효능감 관련변인에 대한 상대적 효과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전체 효과

크기는 -.05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음의 값은 남아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크기는 ES_{sm} 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확률적으로 해석해보면, 정상분포곡선 하에서 남아를 둔 어머니가 여아를 둔 어머니보다 평균적으로 2% 정도 부모효능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균이 2% 정도 낮다는 것은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부모효능감에 대한 자녀의 기질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효과크기는 .21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었으며, 양육불안을 제외한 각 하위영역에서도 작은 효과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인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등에 만족할수록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

모효능감에 대한 자녀 관련변인의 효과크기와 사례수, 표준오차, Q값, 95% 신뢰구간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2. 어머니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어머니 관련변인들 중 학력,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신념(인성/지적)의 전체 효과크기는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랜덤효과를 적용한 후 그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전체 효과크기는 -.46으로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었다. 이 변인에서 음의 값은 부적 상관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보고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양육불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45로 큰

<Table 4> Parenting efficacy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hildren

	Parenting efficacy	n	Outcome		Q	95% CI		Random effects in models					
			ES_{sm}	se		Lower	Upper	n	ES_{sm}	se	Lower	Upper	
Children's gender	1	12	-.04	.12	8.50	-.01	.03	-	-	-	-	-	-
	2	13	-.02	.16	13.76	-.09	.05	-	-	-	-	-	-
	3	13	.00	.12	10.91	-.06	.07	-	-	-	-	-	-
	4	12	-.04	.12	12.57	-.11	.03	-	-	-	-	-	-
	5	13	-.06	.12	14.01	-.12	.01	-	-	-	-	-	-
	6	3	.11	.14	5.16	-.01	.17	-	-	-	-	-	-
Total		20	-.04	.13	56.63**	-.09	.02	20	-.05	.22	23.65	-.99	-.80
ES_s													
Children's temperament	1	36	.14	.64	79.56**	.12	.16	36	.15	.09	34.93	.12	.18
	2	33	.18	.61	73.63**	.16	.20	33	.18	.09	30.68	.15	.21
	3	33	.16	.61	90.52**	.14	.18	33	.16	.10	31.05	.13	.19
	4	29	.15	.62	78.81**	.13	.17	29	.15	.10	27.99	.11	.19
	5	33	.13	.61	79.12**	.11	.15	33	.14	.09	30.10	.10	.17
	6	5	-.17	.83	28.41**	-.25	-.10	5	-.17	.22	4.00	-.37	.02
Total		27	.16	.60	176.20**	.14	.18	27	.21	.14	20.58	.15	.26

Note. 1. Efficacy 2. Communication 3. Health 4. Control 5. Education 6. Anxiety

Note. -은 사례수가 적어 값이 산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불안이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의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보고할수록 양육불안이 높아짐을 뜻한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전체 효과크기는 .14로 작은 효과크기가 있었으며, 양육불안을 제외하고 하위영역에서 모두 작은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인성/지적)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전체 효과크기는 -.36으로 나타났다. 양육신념(인성/지적)을 측정하는 영역은 한 문항이 ‘아이가 성격이 좋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가까우면 1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성격 좋은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가까우면 7점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은 것은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음의 값은 지적 성취가 아닌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과 부모효능감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과 부모효능감이 부적 상관이 있음을 뜻하게 된다. 양육신념(성숙/환경)을 측정하는 영역은 한 문항이 ‘아이는 각자 타고난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성장한다.’라는 의견에 가까우면 1점, ‘아이의 발달은 어머니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견에 가까우면 7점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은 것이 환경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양육신념(성숙/환경)은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유의한 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효과크기와 사례수, 표준오차, Q값, 95% 신뢰구간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 관련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효과크기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 양육지식

의 효과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들이 어머니의 연령이나 학력, 취업여부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보다 효과크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주변 환경 관련변인의 효과크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전체 효과크기는 .34, 사회적 지지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전체 효과크기는 .36로 모두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소득이 부모효능감에 대해 갖는 효과크기는 .09로 작은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물리적 변인보다는 사회적 지지나 양육참여와 같은 심리적 변인이 갖는 효과크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주변 환경 관련변인의 효과크기와 사례수, 표준오차, Q값, 95% 신뢰구간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4. 부모효능감 관련변인의 상대적 효과크기

11개 변인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후, 유의한 값으로 판단된 9개의 변인을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크기 순위와 함께 Table 7에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효과크기가 큰 것은 양육스트레스로, 그 효과크기는 -.46이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효과크기가 두 번째로 큰 변인은 양육신념(인성/지적)으로 그 값은 -.37이었다. 양육신념(인성/지적)도 부모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여 부모가 인성을 강조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으며, 지적성취를 강조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큰 효과크기는 사회적

<Table 5> Parenting efficacy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other

	Parenting efficacy	Outcome						Random effects in models					
		n	Outcome		Q	95% CI		n	Outcome		Q	95% CI	
			ES _m	se		Lower	Upper		ES _m	se		Lower	Upper
Status of employment	1	15	-.08	.13	31.23**	-.14	-.02	15	-.08	.19	14.79	-.17	.13
	2	11	-.13	.14	14.54	-.21	-.05	-	-	-	-	-	-
	3	11	-.09	.14	19.21*	-.17	-.02	11	-.09	.19	9.65	-.20	.14
	4	10	-.01	.14	8.53	-.09	.07	-	-	-	-	-	-
	5	11	-.06	.14	30.14**	-.14	.02	-	-	-	-	-	-
	6	4	-.04	.13	3.01	-.17	.02	-	-	-	-	-	-
	Total	25	.03	.14	56.26**	-.02	.08	-	-	-	-	-	-
ES _s													
Age	1	16	.01	.06	63.16**	-.02	.04	-	-	-	-	-	-
	2	16	.02	.07	45.76**	-.02	.04	-	-	-	-	-	-
	3	16	.01	.07	35.79**	-.02	.04	-	-	-	-	-	-
	4	15	-.00	.07	47.53**	-.04	.03	-	-	-	-	-	-
	5	16	-.01	.07	47.69**	-.04	.02	-	-	-	-	-	-
	6	4	.05	.06	0.11	-.01	.11	-	-	-	-	-	-
	Total	22	.02	.07	89.57**	-.00	.05	-	-	-	-	-	-
Academic background	1	20	.06	.06	80.19**	.03	.08	20	.05	.13	21.58	-.01	.10
	2	16	.05	.06	32.72**	.01	.08	16	.04	.09	16.08	-.00	.09
	3	16	.05	.06	35.27**	.01	.08	16	.04	.10	16.47	-.00	.09
	4	15	.03	.05	33.32**	-.00	.06	-	-	-	-	-	-
	5	16	.08	.06	102.10**	.04	.11	16	.06	.16	16.47	-.02	.15
	6	6	.11	.07	6.12	.05	.16	-	-	-	-	-	-
	Total	28	.09	.07	116.30**	.07	.12	28	.09	.13	27.80	.04	.14
Parenting stress	1	51	-.26	.06	287.61**	-.27	-.24	51	-.28	.13	54.04	-.31	-.24
	2	44	-.21	.06	226.80**	-.23	-.19	44	-.23	.13	49.07	-.27	-.19
	3	44	-.18	.06	172.24**	-.21	-.17	44	-.20	.12	47.33	-.23	-.16
	4	44	-.19	.06	249.53**	-.21	-.17	44	-.22	.14	46.32	-.26	-.18
	5	44	-.17	.06	192.33**	-.19	-.15	44	-.19	.12	48.55	-.23	-.15
	6	12	.44	.06	48.57**	.41	.47	12	.45	.12	9.88	.38	.51
	Total	42	-.46	.07	1182.90**	-.48	-.44	42	-.46	.36	29.71	-.58	-.35
Parenting knowledge	1	9	.17	.07	5.36	.13	.22	-	-	-	-	-	-
	2	35	.07	.11	72.21**	.04	.11	35	.09	.16	36.75	.04	.14
	3	35	.10	.11	72.20**	.06	.13	35	.11	.16	37.14	.06	.16
	4	35	.02	.11	31.42	-.01	.05	-	-	-	-	-	-
	5	35	.09	.11	54.02*	.06	.12	35	.10	.14	35.80	.05	.14
	6	9	.08	.17	88.57**	.04	.13	9	.06	.22	15.59	-.08	.21
	Total	40	.13	.10	217.26**	.10	.16	40	.14	.21	55.65	.08	.21
Parenting beliefs (Personality/Intellectual achievement)	1	-	-	-	-	-	-	-	-	-	-	-	-
	2	2	-.19	.06	0.26	-.29	-.13	-	-	-	-	-	-
	3	2	-.24	.06	0.60	-.30	-.16	-	-	-	-	-	-
	4	-	-	-	-	-	-	-	-	-	-	-	-
	5	2	-.09	.06	0.5	-.19	-.04	-	-	-	-	-	-
	6	-	-	-	-	-	-	-	-	-	-	-	-
	Total	5	-.26	.07	118.27**	-.32	-.20	5	-.36	.38	5.05	-.69	-.02
Parenting beliefs (Maturation/Environmentalism)	1	-	-	-	-	-	-	-	-	-	-	-	-
	2	2	.02	.06	0.95	-.06	.10	-	-	-	-	-	-
	3	2	.01	.06	3.83	-.07	.09	-	-	-	-	-	-
	4	-	-	-	-	-	-	-	-	-	-	-	-
	5	2	-.06	.06	0.96	-.14	.02	-	-	-	-	-	-
	6	-	-	-	-	-	-	-	-	-	-	-	-
	Total	5	-.05	.06	8.14	-.11	.01	-	-	-	-	-	-

Note. 1. Efficacy 2. Communication 3. Health 4. Control 5. Education 6. Anxiety.

Note. -은 사례수가 적어 값이 산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Table 6> Parenting efficacy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family surroundings

	Parenting efficacy	Outcome						Random effects in models					
		n	ESr		Q	95% CI		n	ES _{sm}		95% CI		
			ESr	se		Lower	Upper		ES _{sm}	se	Lower	Upper	
Father's involvement	1	15	.03	.05	87.07**	.29	.35	15	.33	.13	13.66	.27	.40
	2	15	.30	.05	81.58**	.27	.33	15	.31	.13	13.61	.25	.37
	3	15	.29	.05	112.73**	.27	.32	15	.30	.15	13.43	.23	.38
	4	15	.24	.05	54.78**	.21	.27	15	.25	.10	13.90	.19	.30
	5	15	.30	.05	79.54**	.27	.33	15	.31	.13	14.30	.24	.37
	6	-	-	-	-	-	-	-	-	-	-	-	-
	Total	17	.33	.06	98.04**	.30	.35	17	.34	.13	15.22	.27	.40
Family's income	1	8	.13	.06	3.50	.09	.17	-	-	-	-	-	-
	2	8	.06	.06	24.65**	.02	.10	8	.05	.12	6.78	-.03	.13
	3	8	.02	.06	21.12**	-.02	.06	-	-	-	-	-	-
	4	8	.03	.06	14.56*	-.01	.07	-	-	-	-	-	-
	5	8	.00	.06	35.46**	-.04	.04	-	-	-	-	-	-
	6	-	-	-	-	-	-	-	-	-	-	-	-
	Total	17	.09	.06	32.22**	.06	.12	17	.09	.08	16.63	.05	.13
Social support	1	29	.30	.06	361.80**	.28	.32	29	.28	.21	29.36	.20	.35
	2	29	.34	.06	206.63**	.32	.36	29	.33	.16	28.62	.28	.39
	3	29	.28	.06	259.38**	.26	.30	29	.26	.18	29.15	.20	.33
	4	29	.27	.06	108.56**	.25	.29	29	.27	.11	28.20	.23	.31
	5	29	.29	.06	200.40**	.27	.31	29	.28	.15	31.16	.22	.34
	6	-	-	-	-	-	-	-	-	-	-	-	-
	Total	30	.38	.06	367.93**	.36	.40	30	.36	.20	26.48	.29	.43

Note. 1. Efficacy 2. Communication 3. Health 4. Control 5. Education 6. Anxiety

Note. -은 사례수가 적어 값이 산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Table 7> The number, mean, and rank of effect size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Variables		The number of effect size	Mean effect size (<i>U₃</i>)	Rank	
				in category	in all
To the children	Gender	25	-0.05(48%)	2	9
	Temperrament	49	.21	1	5
To the mother	Academic background	40	.09	4	7
	Parenting stress	71	-.46	1	1
	Parenting knowledge	44	.14	3	6
	Parenting beliefs(Per./Intel.)	6	-.37	2	2
To family surroundings	Father's involvement	17	.34	2	4
	Family's income	20	.09	3	7
	Social support	24	.36	1	3
Total		0			

지지로, 효과크기는 .36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 주변의 지지가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효과크기가 .34로 확인되어, 아버지의 양육참여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변 환경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높은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자녀 기질의 효과크기는 .21로, 정적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가졌다. 자녀의 기질적도는 부모가 자녀의 기질(활동성, 적응성, 반응성, 사회성 등)에 대해 만족할수록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기질이 순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양육지식의 효과크기는 .14로, 정적으로 작은 효과크기가 확인되어 부모가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학력과 월소득의 효과크기는 모두 .09로 작은 효과크기가 산출되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 관련변인을 확인하고, 각각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변인은 자녀의 성별과 기질,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양육신념,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정의 월소득,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 관련변인, 어머니 관련변인, 주변 환경 관련변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자녀 관련변인에서 자녀의 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효능감에 대해 .21의 효과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 효과크기의 순위는 5번째에 해당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신념, 주변의 사회적 지지 보다는 효과크기가 작지만, 자녀의 성,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소득 보다는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타고난 기질인 변화에 대한 적응도, 활발한 신체적 움직임, 생리적 주기의 규칙성 등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만족하느냐가 부모효능감에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있다는 것은, 자녀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타고난 기질이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워 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Heo와 Lee(2010)의 연구는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한바 있다. 이처럼 자녀의 타고난 기질에 대해 불만을 갖기 보다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기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부모효능감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머니 관련변인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신념은 부모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효과크기가 각각 1순위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한 것과 유사하게 양육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대해 -.46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부모들은 부모효능감을 낮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렵

거나,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워 다루기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이는 자녀의 기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느낄 때도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Ha & Seo, 2010),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주변 환경 관련변인과의 연관되어 부모효능감을 낮추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상대적 효과크기가 2순위로 나타난 양육신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성과 지적 성취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부모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음의 값은 자녀의 인성을 강조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지적 성취를 강조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가정과 학교, 사회 분위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지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인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는 다른 변인에 비해 연구의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육지식 또한 부모효능감에 대한 효과크기가 .14로 상대적 효과크기는 6번째에 해당하였다. 이는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육지식을 갖추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거나, 양육신념을 형성하는 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기질이나 생활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서 부모효능감이 더욱 낮아질 수 있지만, 양육신념이나 지식을 가진다면 부모효

능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모가 되기에 앞서 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지식을 갖추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부모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환경 관련변인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효능감에 대해 .36의 효과크기를 가져 상대적 효과크기가 3순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지지는 시댁, 친정, 시설 등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Choi, 2010; Yoo, 2006)들은 주변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 때 부모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즉,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져 더욱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Crockenberg, 1987). 또한 주변에서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아짐을 의미하여, 사회적 지지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부모효능감을 높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에서 물질적인 지지는 부모효능감과 상관이 낮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가정의 월소득이 부모효능감에 대해 갖는 효과크기가 낮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부모효능감과 상관이 적은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또한 .34의 효과크기를 가져 상대적 효과크기는 4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모두 높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혼자 고립된 채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부부가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아버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사회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 사회가 제반시설을 확립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모들을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효능감과 관련한 단편적 연구 결과들을 11개의 관련변인으로 유목화한 후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각 변인별로 통일된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과 그 중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통합연구가 갖는 큰 장점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는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의 장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부모효능감 관련변인을 탐색하여 봄으로써 부모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모효능감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모순된 결과를 보고했던 자녀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양육지식, 양육신념, 그리고 가정의 월소득,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와 그 상대적 크기에 대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로써 앞으로 비슷한 연구들이 반복되는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부모효능감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된 논문들이 제시하고 있는 변인 이외의 보다 다양한 변인의 탐색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정서지능, 행복감,

가족응집성,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등 부모효능감과 관련되어 연구되었지만 그 수가 5편이 안 되어 관련변인에 포함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변인들도 그 연구 수가 축적되었을 때 다시 탐색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방법이 필요하다. 조건 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다더라도 자녀의 출생순위가 같지 않다면 똑같은 조건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를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자녀의 연령을 관련변인에 넣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녀 관련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자녀의 수, 출생순위, 부모가 된 기간 등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Secer, Gülay-Ogelman와 Önder(2013)는 자녀의 왕따문제를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부모효능감을 언급하면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의 몫이며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었다. 몇몇의 연구들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에 대해 연구하였지만(Lee, 2010; Oh, 2005; Park, 2003), 그 수가 적어 관련변인을 유목화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 대해서만 그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관련변인과 비교

하여 차이점을 논해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부모 각각에게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부모교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n, R. R., & Kim, J. A.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children's daily stress, and peer competence.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6(1), 329-350.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yeon, S. Y.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number of child to maternal attitude and maternal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Korea.
- Choe, H. S. (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oe, H. S., & Chung, O. B.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1-15.
- Choi, G. W.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fficacy,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mother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Kyonggi, Korea.
- Choi, Y. H. (2010).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parenting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the internet parenting community on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 Erlbaum.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ion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76-975.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of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lass, G. V., McGaw, B., & Smith, M. I. (1981).

-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 Sage.
- Gross, D., & Rocissano, L. (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hood : Its measurement for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Nurse Practitioner*, 13, 19-29.
- Ha, J. Y., & Seo, S. J. (2010).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 and maternal parenting variables on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151-168.
- Hedges, L. V., &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Orlando, FL : Academic Press.
- Heo, M. H., & Lee, J. J. (2010). Effects of a parent-child interaction program 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2), 61-77.
- Hong, J. A. (2010). A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gender and age of the moon, mother's rearing knowing and rearing efficacy, and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ackson, A. P., Choi, J. K., & Bentler, P. M. (2009).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The Journal of Family Issues*, 30(10), 1339-1355.
- Jung, A. K., Kim, K. H., & Kim, D. M. (2008). A meta-analysis on the studies of career indecis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551-564.
- Jung, J. O.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o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eir temperament and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G. S. (2011).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on mother-child linguistic interactions and infants' pro 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M., & Doh, H. S.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Lee, J. S. (2009).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Kyonggi, Korea.
- Lee, K. H. (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A. (2010). The effects of parenting knowledge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their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Lee, S. E., & Seo, H. (2007).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 Relationship with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4), 127-144.
- Light, R. J., & D. B. Pillemer. (1982). Number and narrative : Combining their strengths in research review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2, 1-26.
- Moon, H. J. (2005).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 139-149.
- Nam, W. H. (2012).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al beliefs on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Oh, M. Y. (2005).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athers and mothers on the parenting efficacy, knowledge of infant-care and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Oh, S. S. (2002). *Meta-analysis : Theory and practice*. Seoul : KU Smart Press.
- Park, E. J.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efficacy,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buk, Korea.
- Secer, Z., Gülay Ogelman, H., & Önder, A. (2013).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the peer relations of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83*(1), 63-74.
- Seo, J. E. (2012). A meta-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family fun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Son, G. B. (201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n mother-children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Yoo, K. J. (2006). The influence that the mother of infant'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have on the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2012년 10월 31일 투고, 2013년 1월 28일 수정
2013년 2월 6일 채택